

광주시, 박광태 전 시장 아들 땅 특혜의혹 감사 청구

광산구 이어 청구...용도변경 과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범위반 감사 정치권 '토호 세력 카르텔' 의혹 제기...경찰 수사 촉구 목소리도 커져

광주시가 광산구에 이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 소촌농공단지(산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실제 많은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지 10여 일 만으로, 광역·기초단체가 동일 사안을 놓고 감사원 공익 감사를 연이어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역사회에선 현재 광주시장이 사실상 특혜 가능성을 인정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와 함께 수사의뢰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디게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의 경우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 '토호 세력 카르텔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악랄적인 이런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포함해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감사원에 청구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4500여㎡ 제조시설(공장용지)이 지난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산단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2018년 3월 전 광주시장 아들의 해당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 책임 등을 집중 확인한 끝에 공익 감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일단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

업단지 용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과정에서 입주 때까지 관리기관(광산구)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업무 담당자는 지원시설 변경을 반대했던 1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셀프 유출'하고, 되레 명단유출을 핑계로 전체 위원을 교체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 등 필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과 소촌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면적을 초과하면서까지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앞서 광산구도 지난 4일 이번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으며, 추가로 특혜 의혹이 드러나면 감사청구와는 별도로 수사의뢰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귀순 광주시의원(민주·광산4)은 지난 19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끄는 광산구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속히 자체 감사와 수사 의뢰를 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진보당 광주시당 등도 논평 등을 통해 '토호세력 카르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법·감사기관의 특별 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일단 광주경찰청은 수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도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더위 퇴치는 '열공'으로 23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천둥·번개 요란한 비 내일까지 50~100mm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에 25일까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5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0~10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23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전남 12개 시·군(장성·고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24일 새벽과 오전에 기해 광주와 전남 나머지 10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24일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강한 비가 내린 뒤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25일 새벽부터 아침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도 강약을 반복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많이 내리는 곳은 최대 150mm까지 내릴 전망이다. 비는 25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매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적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북한, NCG출범 반발 순항미사일 기습 발사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 핵 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북한이 주말 새벽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을 기습발사하며 도발에 나섰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문과 한미의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출범에 반발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 이후 3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3월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발과 '화살-2형'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폭우로 농사 망친 농민들 한숨 ▶6면

여자월드컵 내일 콜롬비아전 몸싸움 관전 ▶18면



호남의 누정 - 광주 취가정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족!

JEONNAM 2023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3.10.13.~10.19.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3.11.3.~11.8.

주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 JNSAO,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C